경찰청장, 사퇴 지적에 "충분히 고민"

〈윤희근〉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여야, 시민사회 동향 파악 대통령실에 올린 '정책참고자료' 문건 관련 공방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인파 통제 미비, 112신고 상황 보고 및 경력 지휘체계 부실 등 총체적 난맥상을 놓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재로서는) 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치안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제게 책임이 무겁게 있다고 생각하다"면서도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퇴하는 것보다는 조사와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제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때 (결정할 것)"라고 했다.

현장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만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충북서 지인들과 캠핑을 하고 잠들었다가 한 차례 상황보고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그는 경찰청장이 경찰청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간 것을 지적하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경찰청장은 전국이 관할 범위"라고 반박했다. 또 캠핑 당시 음주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며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은 이날 4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시민사회 동향을 파악해 대통령실에 올린 '정책참고자료' 문건이 정당한 업무였는지에 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해야 할 업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참고자료'에 관해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거나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강하게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적인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찰 문건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경찰청 정보분석과장에게 '참사에 경찰 배치가 미흡한 거로 흐를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이 근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참고자료'를 들어 보이고 "경찰이 계획도 안 세우고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 통제도 못 해놓고, 그 뒤에 세월호 참사처럼 정부 대응 미비,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만드는 정신이 뭔가"라며 "사전 계획은 제대로 못하고 사후에는 치밀한 작전계획까지 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통상적인 보고'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작성한 보고자료라는데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 윤 청장은 "정보업무처리규칙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해야 할 업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주말에 집회나 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단체 동향은 들어가는 것"이라며 "비슷한 문건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적인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찰 문건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정책참고자료'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온라인 특이여론 등 5개 주제로 구성됐고,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치료비·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적절 언행·처신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등 정부 대응 관련 언급이 담겼다.

/뉴시스

재보궐 승리 다짐… 국힘 전북도당 신년인사회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4일 도당사 5층 대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 국민의힘 전북도당 제공〉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와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 재보궐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참배와 신년인사회에는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전북도당 당협위원장 및 핵심·주요 당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올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통한 전북의 비약적인 발전과 2023년도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이번 참배와 신년인사회를 통해 전북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와 함께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북도당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4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슈퍼스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로컬푸드에서 정치개혁까지'

임정엽 전 완주군수 출판기념회 성료

전주 · 전북발전 위한 100대 정책 · 비전 제시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로컬푸드에서 정치개혁까지' 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 출마는 더불어 민주당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난 상태에서, 앞으로 지역민들과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임 전 군수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아지고 있다.

이자리에서 임 전 군수는 "전주와 전북을 위해 지역출신의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북의 몫을 확실이 챙길 수 있는 정치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 했다.

또 미래의 전주를 위해 100개 주제와 함께 '내일의 전북, 행복의 전주'를 향한 정치적 어필을 했다.

4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슈퍼스타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는 저자 사인회, 식전 공연, 축하영상, 토크쇼(시민과의 대화), 전주비전 퍼포먼스 등 시종일관 신명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로컬푸드에서 정치개혁까지' 출판기념회 자리에는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범기 전주시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의 축사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등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전달됐다. 여기에 김성식 전 의원도 먼 거리를 달려와 자리를 빛내줬고 기념회는 성황리에 열렸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전주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임 전 군수의 정책집 출간을 축하해주었다.

임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5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전주시민과 도민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전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30년 동안 고민하고 실증한 정책집을 출간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비전까지 포함한 이 책은 지역회생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로컬푸드에서 정치개혁까지'라고 제목을 붙인 이 책에서 임 전 군수는 전주와 전북발전을 위한 100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인으로 자신의 철학, 소신 등을 가감없이 담아냈다. 총 6부로 구성했으며, 교육, 경제, 지역, 도시재생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안도 소개한다.

임정엽 전 군수는 전북도의원(효자·삼천·평화), 도지사 비서실장, 민주당 중앙당 기조실 부실장, 김대중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쳐 민선 4기 완주군수(2006~2014)를 역임한 인물이다.

여기서 완주군수 재임 시절 로컬푸드 성공 신화를 일궈내 전국적인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특별취재반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